



오늘의 禪語

선어를 통해 깨달음으로 들어간다

선어는 선의 정신과 사상, 그리고 추구하는 바를 4-5 개의 글자 속에 응축시켜 놓은 것입니다.

선어의 여러 언어 중에서도 선어처럼 개념이 잘 포착되지 않는 말도 드뭅니다.

선어를 모르면 전통선(傳統禪)을 이해할 수도, 선의 고향에 가 볼 수도, 선향(禪香)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 글을 어떤 방식으로 읽든 그것은 독자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난해한 언어일수록 쉽게 쓸 것”

는 마음을 가다듬고 읽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곳이 있다면 한번 좀 더 음미해 보면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선의 입장-선(禪)과 인간의 실존

다. 한 인간으로서 수행자로서 어떻게 하면 번뇌와 욕망의 활화산으로부터 벗어나 평온한 마음 상태, 그 어느 곳에도 미련두지 않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선이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달마 이래 많은 선자(禪者)들은 진지한 시각으로 인간의 실존에 대하여 고찰해 왔습니다.

따라서 선승들이 읊은 선사나 오도송화두 선문답 등 모든 선어가 ‘공(空)’, ‘중도’, ‘불이(不二)’, ‘무집착’, ‘무심’, ‘무분별’, ‘즉심시불’ ‘일체유심조(관념 타과의 의미) 등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사도 오도송화두 선문답도 화두도 아닙니다.

는 엄격한 기준과 사상적 토대를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선은 논리나 상식을 초월해 있다’ 또는 ‘상식적 논리적으로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무집착’이나 ‘공(空)’은 물질적으로는 ‘무소유’, ‘땡 빈 상태’ 등을 뜻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어떤 것도 개념화하지 않고 그 무엇에도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을 신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의 미래를 예견하는 철학도 아닙니다. 간혹 무슨 특별한 세계가 있는 것처럼 떠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말하는 자의 과장(誇大 표현)이 아니면 화려한 언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청자(聽者)의 망상입니다.

무애자제가 선이 추구하는 바라고 합니다.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선은 부대의 정신을 체득하는 작업입니다. 현실 긍정적 사고 아래에서 형성된 선자(禪者)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세계는 없습니다. 선은 불노장생을 추구하는 양성승도, 인간

윤창환



1965년 입산, 1978년 환속, 해인강원 13회,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 졸업. 논문으로는 <한암선사의 자전적 구도기 일생애> <한암선사의 서간문 고찰> 등이 있음. 민족사 대표.

깨달음은 여인들의 수행법 <1>

연재를 시작하며

“아난야, 여인이 만약 법과 율에 있어서 집을 나와 출가하면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를 현증할 수 있느니라.”

여성 출가제도의 성립을 묘사한 남전대장경 <비구니 건도(健度)>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다.

<법구경 주석서(Dhammapadam-Commentary)>에 등장하는 성자들을 분석한 한 통계에 따르면, 총 1만2975명의 성자가 수다원과 이상의 도과(道果)를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 여기서 비구니와 우바이를 합친 여성 성자는 3544명(61.2%)으로 비구와 우바이를 합친 2243명(38.8%)의 남성보다 1300여 명이 더 많다.

> <승만경> <화엄경>과 같은 대승경전이 성립한 시기에 이르렀다.

<화엄경>에서는 선재동자가 구도와정에 친견한 여성 선지식이 10명에 달한다.

다. 특히 계율의 제약은 여성 오장설과 함께 변성남자설이 대두되면서 여성 불성불(女身不成佛설)이 고착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요즘도 일부 여성 불자들이 가운데서 “여성은 성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필자가 ‘깨달음은 여인들의 수행법’을 연재하는 까닭은 우바이는 물론 모든 수행자들이 성불을 내성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금세에 끝마치겠다는 자신감과 발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이다.

부처님 재세 시에 무려 8353인의 아라한이 출현했지만, 후대에 내려올수록 깨달은 성자가 줄어든 것은 오로지 부처님과 그 가르침, 수행법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필자는 ‘부대의 딸’로 불린 장로니로부터 대 여성 수행자들의 구도여정과 수행, 깨달음을 조명하면서 즉신성불(即身成佛)에 대한 절대 확신을 나누고자 한다.

수행자들 성불 발심 심어주기 위해

여성성자 즉신성불 확신등 조명계획

관의 변천과 더불어 남녀를 차별하는 내용이 경전에 담겨졌다.

김성우 객원기자 buddhapia5@hanmail.net

신행게시판

●연등국제선원 청소년 영어템플스테이=연등국제선원이 1월 한달간 청소년 영어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능인불교대학 45기 모집=서울 능인선원이 능인불교대학 45기 모집에 나섰다.

●대중사 겨울수련회=해남 대중사가 두 차례의 겨울수련회를 마련했다.

●도선사 무자년 삼재팔날소멸 불공기도=서울 도선사가 일곱 번에 걸쳐 무자년 삼재팔날소멸 불공기도를 봉행한다.

●금산사 산사체합 67기=김제 금산사가 1월 11~13일 열리는 산사체합 67기 모임에 나섰다.

●우곡선원 청소년 인성교육=우곡선원 부산 성심개발교육원에서 1월 12일 오전 9시 30분, 초등학교 3~6학년반 대상으로 제2기 52명 명상을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마음동산 꾸미기’를 개최한다.

성불화 카필라 신발

신발공학이 만든 가장 편안한 신발 성불화 인기!



카필라는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 국가기일

작된 기능성 신발이다. 신발내부에는 신소재를 사용해 겨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차단해 대단히 따뜻하고 여름에는 발냄새까지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신고, 벗기 편하게 원터치 신발끈으로 되어있다.

디자인면에서는 불자님들의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고, 스타일에는 승복색상에 맞게 품격있게 제작하고, 최고급 천연방수 가죽 뉴백을 사용해 세련되어 종교를 떠나 타종교인들도 신성하고 있다.

최고급 천연방수 가죽 “뉴백” 사용

것이 독특하다. 성불화 “카필라”는 남녀 공용으로 225mm부터 280mm까지 사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신을 수 있다.

문의: 080-775-7575
전화: 935-12-355423 박정미

일진 100만세트 판매기념 일진글루코사민100

관절이 불편하십니까?

날씨가 추울 수록 더욱 조심해야 하는 관절건강과 연골건강 꼭 챙기십시오!

일진제약 글루코사민은 관절, 연골의 구성성분으로 관절·연골에 영양을 공급하여 튼튼한 관절을 원하시는 분께 좋은 제품이다.

노마진 특별기획이 판매!!



▶내용량 : 1통(570mg×270캡슐) 198,000원 → 69,800원

총14개월분 (글루코사민 6개월분 + 칼슘 8개월분)

일진 헬스 글루코사민100 글루코사민을 100% 함유한 헬스글루코사민 100!
- 관절 및 연골의 영양공급이 필요한 중·장년층
- 관절의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년기
- 원활한 신체의 움직임을 원하시는 분
- 등산과 마라톤을 즐기하시는 분
- 기타 관절과 연골의 건강관리가 필요하신 분

제조원 일진제약(주) 주문상담 080-223-7000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웃! 「천하무적」 웃 웃가네 토종참웃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웃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웃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민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인론보도자료

-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웃 안티는 참웃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웃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환천교 정은의 좋은아침 - 웃 잘 챙겨 먹는 참웃
• 2003.11 한국경제 - 참웃 식품은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웃 안티는 참웃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웃 부작용 걱정! 난 맥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웃, 안전성 완료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참웃이 뭐예요?
웃 건강법
▶2006.8.20 KBS 성심일요일 - 계절의 보석 웃 참웃
▶2006.10.31 KBS 무한대우 - 참웃

구입편 꼭 확인을...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